

## 스물여덟번째 이야기

###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다

[풋대를 향하여⑤-fellowship]

#### 쉬나 선교사님!




주안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영국 여행을 잘 다녀왔어요? 요즘 영국 비자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는데 수월하게 다녀오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 식구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남편 조 선교사는 24일 가나로 출국했고 우간다와 케냐도 방문해서 졸업식과 WLICC 수업을 할 예정이예요. 이번 일정이 다소 바쁜 것 같아서 11월 18일 귀국할 때까지 카타르에서도 중보기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동적이었고 은혜가 충만했던 지난번 카타르 졸업식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중에서도 마노 자매의 간증이 매우 특별했고 그 간증을 통해 BEE를 향한 나의 헌신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기도에 대한 나의 믿음도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들으시고 우리가 간구한 것보다 더 많이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그분의 때와 방법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신다는 것어요.

저는 쉬나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BEE 카타르의 사역을 통해 많은 나라들로 사역이 확장되고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것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이 제게는 크나큰 기쁨입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사무엘 선교사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선교사님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길 빌며.....

서울에서 김정년 선교사 드림 

Dear Sheena,

Greetings in Christ.

How was the trip to England? I praise God that you and Sam were able to get visa from England because I heard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get one nowadays. I believe that you three had great time together.

Moon left for Ghana on 24th and he will also visit Uganda and Kenya for WLICC and graduations as well. His schedule is quite heavy so I ask you and Qatari co-workers to pray for him and his ministry in Africa till 18th of November.

I still remember the graduation service in Qatar which was so touching and moving moment for me. Above all, Sis Manos' testimony was one of the best items in the service. Her testimony made me to think of my devotion to God in BEE ministry one more time. On top of that it also reassured my belief on prayer. When we pray, God hears more than we say, answers more than we ask, gives more than we imagine in His own time and way."

I want you to know that I do deeply appreciate what you have done for His kingdom and ministry. It has been a great joy to witness the furtherance of Gospel through the ministry of BEE Qatar, reaching out so many countries. All the glory must be to the Lord. Please pass my warm greetings to Sam.

May grace and blessings be in your path,

Kim from Seoul 

### 안녕하세요! 씨니 목사님!




저는 BEE Korea의 최선 집사입니다. 저희 기도 테이블은 BEE India를 위해 3년 넘게 기도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들려왔던 코로나와 관련된 India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우리 기도 테이블 식구들은 마음을 졸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기도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BEE India 식구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파키스탄 인접 지역의 정탐 여행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설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실 저는 India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India라는 나라는 발리우드(Bollywood) 영화에 나오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나라입니다. 이 아름다운 India가 BEE India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꿈꿉니다. 또 BEE India의 식구들을 언젠가는 꼭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목사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최선 집사 드림 

Dear Pator Sunny.

Hi! This is sister Sun from BEE Korea. My prayer group has been praying for BEE Trust India and your family for more than 3 years. The impact of COVID-19 in India during the pandemic made us nervous. We are still praying for the safety of every brother and sister at BEE India. Our team members were excited to hear of your efforts in the neighboring area of Pakistan. We pray that God be with you in all your endeavors.

Actually, I've never been in India. My idea of India is a fun and beautiful country that I see in Bollywood movies. I wish that your lovely country return to the Lord in the near future through the work of BEE Trust India. Also, I hope to meet the brothers and sisters of India someday. May the love of our Lord be with you and with your family always.

Sun from Korea 

[정리 및 편집 최선]

### BEE 소식

1. 2022년 “일상을 넘어 쫓대를 향하여” 일상에서 말씀을 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쫓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BEE 가족을 축복합니다.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3:14).”
2. BEE 토요 기도모임 예배를 함께 섬길 팀원을 모집합니다! 기도 테이블 식구, 순식구 중에서 BEE를 하신 분, BEE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 토요기도 모임 참석자 중(예정 포함)에서 싱어, 인도자를 모집합니다.

3. 10월 22일(토)! 양재BEE 토요기도모임 6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면으로 만나서 기도의 자리를 지킨 서로를 축복하며 더욱 모이기에 힘쓰기를 다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monotoon [모놀로그 in 바이블]

김수경 작가의 모노톤 일러스트와 함께 시간순으로 읽는 성경 인물들의 생생한 독백을 정주행하며 신약성경 차례대로 통독하고 묵상하는 시간!

모놀로그 in 바이블  
문고화 김수경

그 문제적 인물이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8. 세례자 요한을  
따르는 유대인 누가복음 3:1~17

요단강 인근이 들쭉들쭉하다.  
어느 날 혜성처럼 강변에 나타난  
문제적 인물 때문이다.

그는 예상치 못한  
야인의 풍모를 품품 풍기며  
썩어 빠진 세상에  
가히 예언자급의 독설을 날렸고,  
회개하고 제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추상같은 호령으로  
사람들을 들었다 놔다 했다.

그가 바리새인과 귀족들의 위선을  
독한 말로 까댔을 때  
손 안 닿는 등을 대신 긁어 준 듯  
그렇게 시원할 수 없었다.

얼마 전엔 동생의 아내를 고쳐서 재혼한  
해롯 왕가를 도마 위에 올리고  
흠뻑 두들겨 다져 버렸다. 크으!

그가 하나님 나라를 강변하며  
회개를 촉구하면,  
모여든 사람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고 죄를 자백하며  
망설임 없이 누런 강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다.

우리는 조금씩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혹시 그가... 오신다던 그분,  
메시아가 아닐까?'

그러나 그는 뽀뽀 하며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유, 뭘 또 저렇게까지  
손사래를 치고 그러시나?  
물론 부답하겠지.  
하지만 그는 우리의 유일한 기대주다.

이젠 얼굴도장을 찍을 때다 싶어  
나도 세례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뽀뽀 하며  
절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유, 뭘 또 저렇게까지  
손사래를 치고 그러시나?  
물론 부답하겠지.  
하지만 그는 우리의 유일한 기대주다.

"진심으로 당신의 죄를 회개합니까?"

내 차례가 되어 물에 들어가니  
그가 엄중히 묻는다.

"...에?"

말문이 턱 막혔다.

"...나, 나의... 죄요?" 당황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주제였다.

지금까지  
'그들의 죄를 성토하며 후련해하는 동안  
나는 그 갯대에 한 번도  
'나'를 대보지 않았던 것이다.

출처 [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https://instagram.com/monotoon_kimsookyun)